쓰루베오토시 고개

쓰루베오토시 고개는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의 현 경계에 걸쳐있다. '쓰루베오토시'란 '우물물을 퍼 올리는 두레박을 떨어뜨린다' 라는 뜻으로 쓰루베 터널이 건설되기 전까지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가 넘어야 했던 200m 의 험난한 절벽을 가리킨다.

고개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각각의 협곡 동쪽에서는 햇빛에 노출되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고, 산의 사면이 서서히 침식되어 언덕 중턱에 가로놓인 화산암인 응회암의 흰 능선이 드러난다. 그늘이 많이 지는 반대편에서는 눈이 천천히 녹으며 더 많은 식물이 뿌리내릴 수 있다. 사면에는 침엽수림에 섞여 화백나무와 삼나무 등의 낙엽관목이 자라고 있다. 푸른 침엽수와 따뜻한 색감의 낙엽관목이 아름다운 대비를 이뤄 이 고개는 유명한 가을의 단풍 명소가 되었다.

협곡 기슭에는 후지코토강을 따라 오래된 광산로가 뻗어있다. 이것은 17 세기부터 1958 년까지 운영된 역사 있는 구리 광산인 다이라 광산의 터다. 쓰루베오토시 고개를 지나는 교통의 대부분은 광산을 오가는 물자 운송과 관련되어 있었고, 20 세기 초에는 이 마을에 900 명 이상이 살았었다.

메이지시대가 시작된 격동의 1868 년, 고개를 둘러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쓰가루번(현재의 아오모리)과 구보타번(현재의 아키타)의 경계인 이 고개는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이것을 안 구보타번은 이곳에 현지 마타기(일본의 산악지대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단 수렵을 하는 자)를 몇 명 배치해두었다. 그들의 임무는 많은 횃불을 계속 켜놓는 것이었는데, 이는 고개를 엄중히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